



SARANG

기고문 02

시민의 신뢰는 '공공의 공간'에서 싹튼다 _ 채기을 건축사 / 가을 건축사사무소
지방소멸 시대, 건축사가 만들어야 할 새로운 공간 _ 권세란 건축사 / 꿈꾸는 건축사사무소

건축사 인터뷰 03

이름을 내건 약속, 끝까지 책임지는 건축을 짓다 _ 허지민 건축사(허지민 건축사사무소)

광주 지역 뉴스 04-05

광주건축사회 제39회 정기총회 개최
광주 녹색건축 및 에너지 인증제도 실무 세미나 개최
광주건축사회, 여성 건축사 정기총회 성료

전남 지역 뉴스 06-07

전라남도건축사회, 제60회 정기총회 개최
전라남도, 공동주택 침수 막는 '전남형 물막이판' 표준 확정
전라남도건축사회 - 목포공업고등학교, 전문인재 양성 업무협약 체결

전북 지역 뉴스 08-09

전북특별자치도건축사회·전주지역건축사회 정기총회 잇따라 개최 예정
전북 익산, 정읍 지역 - 각 건축사회 업무협약 체결
전북특별자치도, 민간 공동주택 사업에 '용적률 인센티브' 도입

답사기 10

광주건축사회 답사동호회 - 광주 답사기

설계경기 11

일로농공단지 청년문화센터 건립사업 건축설계공모

독자광장 12

한 장의 사진 _ 노을 빛으로 물든 미륵사탑
책 소개 _ 건물 사이의 삶
한 편의 시 _ 의지



건축문화 사랑

광주·전남·전북 건축사회 신문
News 2026.3월호(196호)

광주광역시건축사회
전라남도건축사회
전북특별자치도건축사회



발행인 : 강필서, 이경일, 이성열
창간일 : 2009년 11월 10일

<http://gjkira.kira.or.kr> 건축과 도시, 사람과 자연의
경계를 넘는 소통과 공유의 장!



건축문화사랑을 스마트폰에서도 구독하실 수 있습니다.
오른쪽 QR코드로 접속하신 후, 상단 '건축문화사랑'을
클릭하시고 홈페이지에서 월별 PDF파일을 다운받으시면
구독 가능합니다.

기고문 _ 채가을 건축사 / 가을 건축사사무소(전북특별자치도건축사회)

시민의 신뢰는 '공공의 공간'에서 싹튼다



공공건축은 국가와 지방정부가 시민에게 제공하는 가장 직접적이고 지속적인 공공서비스다. 주민센터·도서관·학교·복지·문화시설은 일시적 정책이 아니라, 시민이 매일 반복해 경험하는 '국가의 물리적 얼굴'이다. 그러나 공공건축의 평가는 여전히 예산 집행 효율, 법적 기준 충족 여부에 갇혀 있다. 이 지표의 한계는 공공건축의 사회적 성능을 과소평가하게 만들고, 결국 시민의 신뢰를 깎아먹는다.

공공건축의 품질은 미관이나 상징의 문제가 아니다. 시민의 국가 신뢰는 제도 설계만으로 생기지 않는다. 일상적 경험이 누적되며 형성된다. 공공건축은 그 경험이 가장 자주, 가장 오래 발생하는 장치다. 공간의 안정성, 접근성, 머무를 수 있는 여유, 관리 수준은 공공의 역량과 의지를 시민에게 직관적으로 전달한다. 기준만 겨우 넘긴 공간은 단기적으로 행정 리스크를 줄일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공공에 대한 기대와 신뢰를 동시에 떨어뜨린다. 이용률 저하, 유지·관리비 증가, 공공정책에 대한 무관심으로 되돌아오는 이유다.

중요한 것은 공공건축의 퀄리티가 예산 총량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다. 발주

방식, 설계 평가 기준, 운영을 포함한 '전 생애주기 관점'의 부재가 품질을 결정한다. 초기 비용 절감에 매몰되면 시간의 축을 고려하지 못한 의사결정이 장기적 비효율을 내재화한다. 반대로 품질을 생애주기 성능으로 평가하면, 설계의 완성도는 '추가 비용'이 아니라 '공공투자의 합리성'으로 바뀐다.

그럼에도 한국의 공공건축은 '최저가'와 '최소 기준'이 지배한다. 최저가 중심 발주는 설계를 가볍게 만들고, 최소 기준 중심 행정은 공간의 가능성을 닫는다. '더 좋아질 여지'를 허용하지 않는 구조에서 좋은 건축은 행정 부담으로, 높은 수준의 설계는 관리 리스크로 오해되기 쉽다.

공공건축의 완성도를 묻는 일은 결국 우리가 어떤 사회를 지향하는지 묻는 일이다. "예산 안에서 법을 지켜 지었는가"에서 멈추지 말고, "이 공간이 공공의 삶을 책임지고 풍요롭게 하는가"를 질문해야 한다. 공공건축을 비용으로만 평가하는 사회와 삶의 기반으로 평가하는 사회는 전혀 다른 도시를 만든다. 공공건축의 수준은 국가가 시민과 맺고자 하는 관계의 수준이며, 그 관계는 도시 곳곳에 선 공공건축의 질로 분명히 읽힌다.

기고문 _ 권세란 건축사 / 꿈꾸는 건축사사무소(전북특별자치도건축사회)

지방소멸 시대, 건축사가 만들어야 할 새로운 공간



지방소멸이라는 말이 무섭게 다가오는 요즘이다. 인구감소는 단순히 숫자의 줄어듦이 아니라, 지역의 역사와 기억이 담긴 물리적 공간이 해체됨을 의미한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 건축사는 이제 단순히 건물을 설계하는 데 머물러서는 안 된다. 이제 건축사는 지역의 생존 전략을 세우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그려내는 '공간기획자'가 되어야 한다.

과거의 건축이 개발 중심의 '채우는 것'이었다면, 지금의 건축은 달라졌다. 이제 건축사는 '어떻게 남기고, 어떻게 다시 쓸 것인가'라는 본질적인 질문에 답해야 한다.

첫째, 유휴 공간의 재활용 또는 재해석을 통한 '공간의 재생'이다.

지역에 남겨진 폐교나 소규모 공공시설물은 지방소멸의 첫번째 징후이다. 많은 지자체가 오래된 보건소, 파출소 등의 유휴 자산을 철거하고 주차장으로 만드는 데 급급한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건축사는 그곳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봐야 한다. 오랜 시간 지역을 지켜온 역사를 보존하면서도 주민의 삶을 풍요롭게 할 복합문화공간으로 계획하거나 현대적 인테리어를 결합해 레트로 감성의 숙박시설로 재해석할 수 있다. 이때 공간은 다시 생명력을 얻는다.

둘째, 무너진 공동체를 잇는 '사회적 거점'의 형성이다.

지방소멸을 가속화하는 요인 중 하나는 커뮤니티의 붕괴다. 기존의 정형화된 마을회관과 경로당에서 벗어나 건축사는 주민들이 자연스럽게 모이고 소통할 수 있는 '공유 주방', '마을 도서관' 등의 새로운 공간을 계획하여야 한다. 건축사가 고민하여 설계하는 동선 하나, 창고 크기 하나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거리를 좁히고 끈끈한 가교가 될 때 공동체는 비로소 회복된다.

셋째, 인구 구조 변화에 따르는 '맞춤형 정주 환경'의 구축이다.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지역의 현실을 외면한 채 대도시의 아파트 모델을 그대로 이식하는 것은 자원 낭비일 뿐이다. 지역의 특수성과 고령층의 생활 양식을 반영한 '케어 안심 주택' 등 대안적 주거 모델이 정착되어야 한다. 이는 지역의 정체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역설적으로 실질적인 인구 유입의 요소가 될 것이다.

결국, 지방소멸 시대의 건축사는 단순히 건물을 설계하는 사람을 넘어 '지역의 시간을 연장하는 사람'이다. 특히 지역건축사는 누구보다 현장을 가장 잘 이해하는 전문가이다. 지방소멸이라는 현실 앞에 지자체와 협력하여 무분별한 신축보다 지역 주민이 누릴 수 있는 공간을 새롭게 해석함으로써 지역만의 고유한 브랜드를 구축해야 한다. 건축사의 전문성과 깊은 통찰이 정부의 정책적 지원, 그리고 주민들의 적극적 참여와 결합될 때, 소멸의 위기는 비로소 지속 가능한 성장의 기회로 전환될 수 있다.

대한건축사협회
광주광역시건축사회

회원중심 감사!
소통하는 감사!

첫째, 사후 지적형 감사가 아닌 예방형 감사를 하겠습니다.
둘째, 회원 보호 중심의 감사를 하겠습니다.
셋째, 투명하지만 부담되지 않는 감사를 하겠습니다.
넷째, 소통하는 감사가 되겠습니다.

가까운 자리에서 살피는 감사가 되겠습니다.

기호 1 2026 감사 후보

약력

- 1993년 조선대학교 건축학과 졸업
- 1998년 건축사 면허 취득
- 2003년 홍익대학교 산업대학원 건축설계 석사
- 현) 창조D&C건축사사무소 대표

최보은



이름을 내건 약속, 끝까지 책임지는 건축을 짓다

허지민 건축사사무소 허지민 건축사와의 만남



허지민 건축사(전남)

건축문화사랑 '건축사 인터뷰'는 광주·전남·전북 지역 건축사들의 걸어온 이야기를 전한다. 삶의 에피소드와 건축사사무소 창업기 및 앞으로의 포부를 동료이자 선후배 건축사들에게 전하여 소속감과 연대의 가치를 느낄 수 있길 기대해 본다.

Q. 건축사사무소 개소 소감, 에피소드가 궁금합니다.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오랫동안 꿈꿔온 '허지민 건축사사무소'를 개소하며 건축사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우리 사무소의 정체성은 단순히 건물을 설계하는 기능을 넘어, 사회와 건축주의 요구를 공간으로 해석하고 현실적 제약 속에서 최적의 해법을 도출하는 '조율'에 있습니다. 건축은 시대의 윤리와 가치를 담는 그릇입니다. 기후 변화, 안전 문제, 공동체 상실 같은 사회적 이슈에 공간적 해법을 제시하며, 인간 중심의 지속 가능한 건축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땅의 조건과 법규, 예산을 면밀히 분석하여 마치 건축사 시험에서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듯, 건축주와 사회적 요구를 동시에 반영해 최상의 가치를 창출하는 능동적인 전문성을 보여드리겠습니다.

Q. 건축사사무소 이름명을 만들 때 어떤 의미를 두고 하신건지 궁금합니다.

"이름을 건다는 것, 그것은 끝까지 책임을 지겠다는 약속입니다."

'허지민 건축사사무소'라는 이름은 제 개인의 정체성이자, 건축사로서의 명예를 건 무한 책임의 표현입니다. 건축물은 한 번 지어지면 수십 년간 그 자리에 머물며 도시의 풍경과 사용자의 삶에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화려한 수식어 대신 제 이름을 전면에 내세운 이유는 설계부터 감리, 완공 후 사후 관리까지 모든 과정에서 당연히 책임지겠다는 의지입니다. 건축주께서 소중한 자산을 믿고 맡기실 때, 제 이름 석 자만으로도 신뢰를 느끼실 수 있도록 매 순간 진심을 다하겠습니다.

Q. 건축사로서 어떤 꿈과 비전이 있을까요.

저의 비전은 '급변하는 사회적 요구와 기술 트렌드를 선도적으로 해석하여 사회적 책임을 실현하는 건축'을 구현하는 것입니다. 건축사의 핵심 역량은 단순한 '절충'이 아닌 '조율'에 있다고 믿습니다. 건축주의 의견을 수동적으로 수용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전문가로서의 통찰을 더해 더 나은 대안을 제안하는 든든한 파트너가 되고자 합니다.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모든 이해관계자가 합리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이를 통해 건축이 개인의 만족을 넘어 지속 가능한 사회적 가치로 확장되기를 꿈꿉니다.

Q. 실제 업계에 몸담으면서 느낀 애로사항이나 건축사 업무 시 불편 사항 등 제도적 개선점을 제시한다면?

현재 건축사의 법적 지위와 사회적 인식 사이에는 여전히 큰 괴리가 존재합니다. 건축사는 국가전문자격을 갖춘 최고의 전문가임에도 불구하고, 대중들에게는 일반 기사 자격증과 혼동되는 경우가 잦습니다. 이러한 인식 부족은 건축 서비스의 정당한 가치 평가를 저해하는 원인이 됩니다. 따라서 대외적 표기에서부터 '기술사 및 건축사'를 병기하여 전문성을 명확히 확립하고, 강화되는 책임과 복잡해진 법규에 걸맞은 합당한 대우가 보장되는 구조적 개선이 절실합니다. 안정적이고 공정한 환경이 뒷받침될 때 건축사는 비로소 창의적인 설계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Q. 디자인이나 설계를 할 때 어떤 마음가짐으로 하시지 만약 디자인이나 설계도면이 구상이 잘 안되면 어떻게 해결하시나요?

저는 설계를 대할 때 걸로 드러나는 화려한 형태보다는 공간 본연의 '기능'과 '안전'에 집중합니다. 구상이 막힐 때면 다시 '대지'와 '사람'이라는 본질로 돌아갑니다.

땅이 가진 물리적 조건과 맥락을 다시 짚어보고, 이 공간을 살아갈 사람들의 동선을 세밀하게 시뮬레이션해 봅니다. 복잡한 미사여구를 걷어내고 '건축주(출제자)의 진정한 의도'가 무엇인지 끊임없이 자문하다 보면, 엉켰던 실타래가 풀리듯 명쾌한 해법이 보입니다. 억지로 짜낸 디자인이 아닌,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며 사용자의 삶을 자연스럽게 담아내는 공간을 지향합니다.

Q. 설계 또는 업무하시면서 특별한 에피소드 있을까요?

가장 기억에 남는 프로젝트는 사회복지관 리모델링입니다. 도면이 없는 노후 건물인 데다 상주 협의체들의 복잡한 요구사항이 얽혀 난관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법규와 예산이라는 명확한 기준 아래 우선순위를 조율하며 투명하게 소통한 끝에 모두가 만족하는 합의점을 찾았습니다. 반면 도서관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초기부터 협의가 일체화되어 매우 효율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 두 경험은 프로젝트의 성공이 단순한 기술력을 넘어, 전문가로서의 합리적인 '조율 능력'과 체계적인 협력 시스템에 달려 있음을 깨닫게 해준 소중한 자산입니다.

Q. 본인이 봤을 때 가장 기억에 남은 건축물이나 건축가 있으실까요?

저는 침묵과 빛의 조화를 강조한 '루이스 칸'을 존경합니다. 그는 재료 본연의 성질을 탐구하며 구조 자체가 예술이 되는 숭고한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그의 철학은 제가 지향하는 '본질에 충실한 건축'의 이정표가 됩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병산서원'에서도 큰 영감을 얻습니다. 풍경을 내부로 끌어들이고 비어 있는 공간을 통해 소통을 유도하는 방식은 현대 건축에서도 여전히 유효한 가치입니다. 칸의 서구적 합리성과 한국 전통 건축의 자연 친화적 정서를 결합하여, 현대적 기술 안에서도 인간미가 느껴지는 따뜻한 공간을 만들고 싶습니다.

Q. 앞으로의 포부는 어떻게 되실까요.

앞으로 두 가지 방향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도시계획적 시각'의 접근입니다. 단일 건물을 넘어 도시 전체의 맥락을 읽고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마스터 플랜에 참여하여 도시의 가치를 높이고 싶습니다. 둘째는 '삶을 담는 단독주택'입니다. 획일적인 아파트 생활에서 벗어나 라이프스타일에 최적화된 집을 꿈꾸는 분들을 위해 진정으로 살고 싶은 공간을 구현해 드리고 싶습니다. 거대한 도시의 비전부터 작은 집의 안락함까지, 규모에 상관없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사람의 삶을 이롭게 하는 건축가로 기억되고 싶습니다.

Q. 앞으로의 계획과 선·후배 동료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말씀은 무엇이 있을까요?

존경하는 선배님과 동료 건축사 여러분, 우리는 현재 급변하는 법규와 막중한 책임이라는 쉽지 않은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우리가 보여주는 전문적인 조율 능력과 헌신은 결국 건축주와 사회의 신뢰를 얻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지금의 난관을 우리 서비스의 진정한 가치를 인정받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부당한 책임은 합리적으로 경감하고 공정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협회를 중심으로 힘을 모아 주십시오. 우리가 함께 전문성을 높여 나갈 때, 비로소 더 안전하고 풍요로운 건축 환경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곡성사회복지회관



석곡권역 커뮤니티센터



도서관 그린리모델링



입면엿장터 커뮤니티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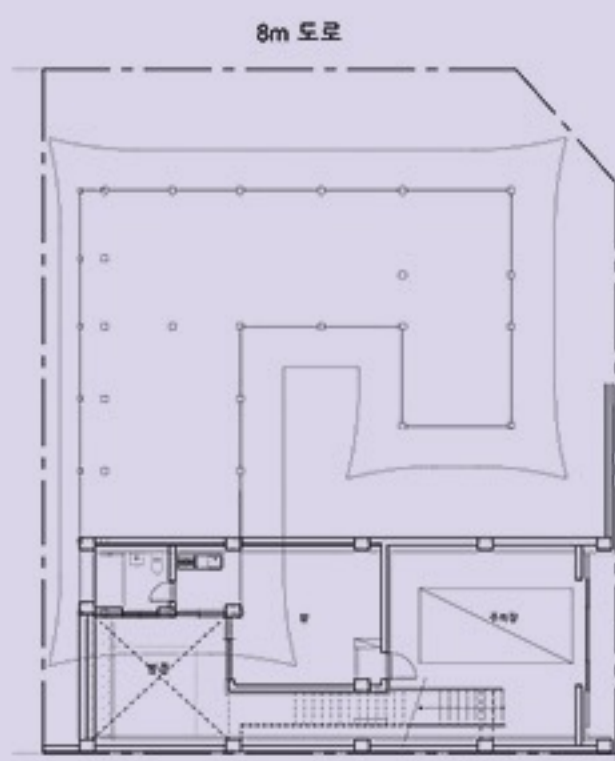


남악1425

임경희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이우
 광주 남구 천변좌로370번길 8-1, 지하층
 Tel. 062-675-33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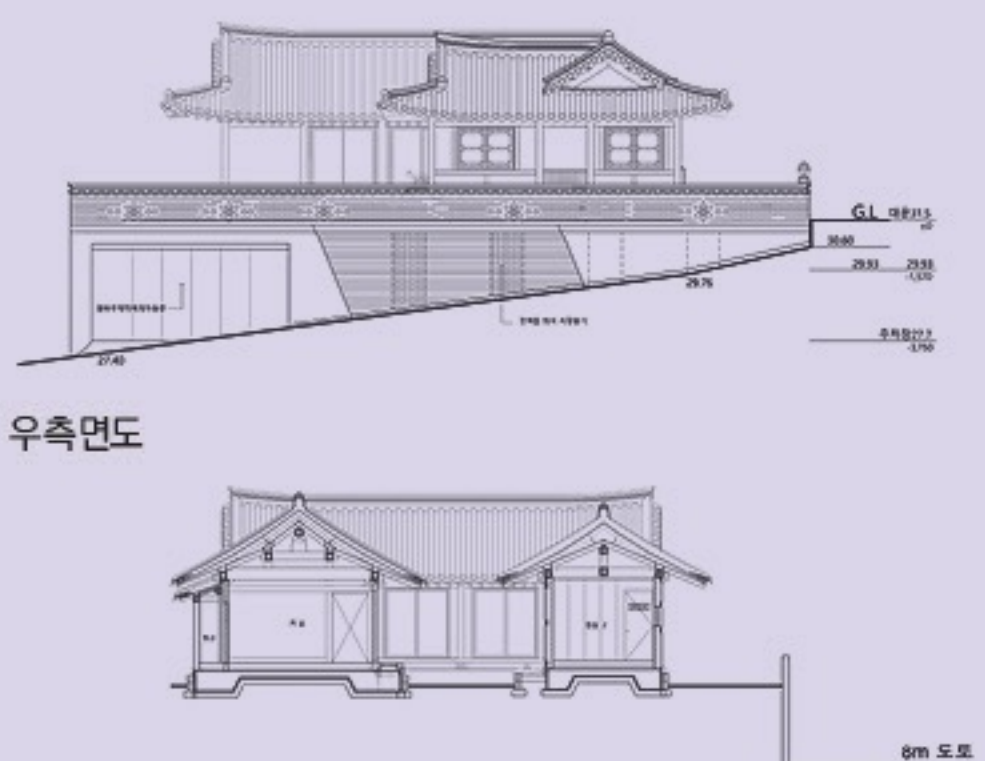
대지위치 : 전남 무안군 삼향읍 남악리 1425번지 / 대지면적 : 428㎡ / 건축면적 : 182.96㎡ / 연면적 : 187.64㎡
 건폐율 : 42.75% / 용적률 : 43.85% / 규모 : 지상 1층 / 주용도 : 단독주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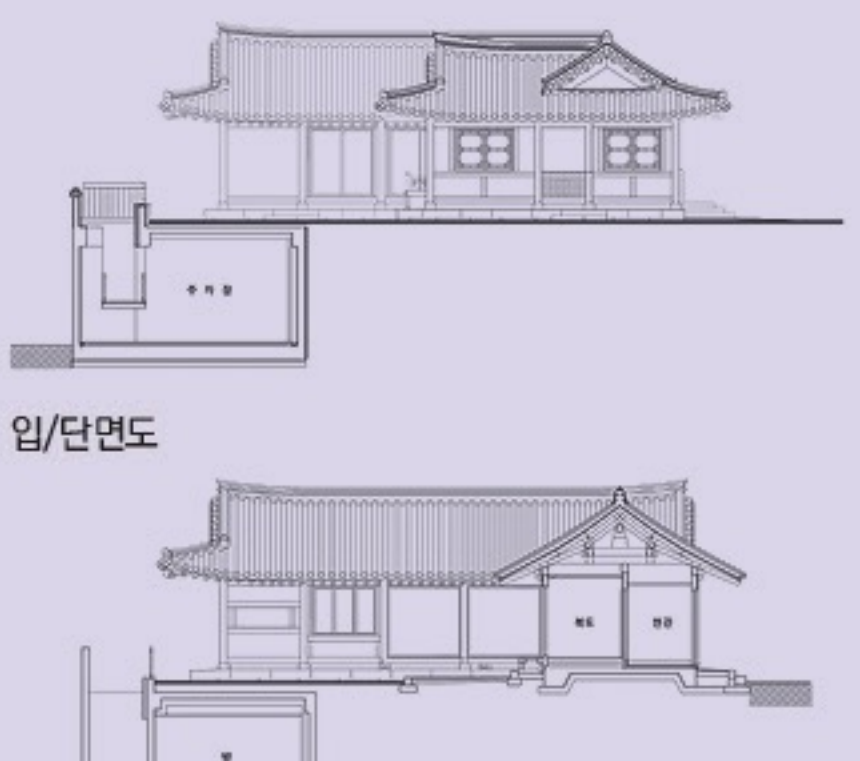
주차장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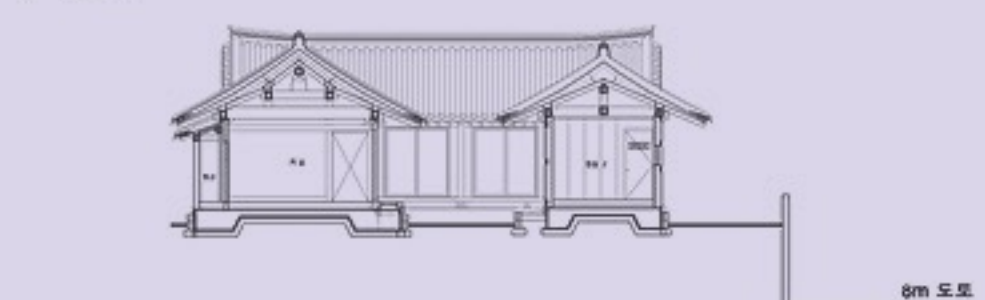
한옥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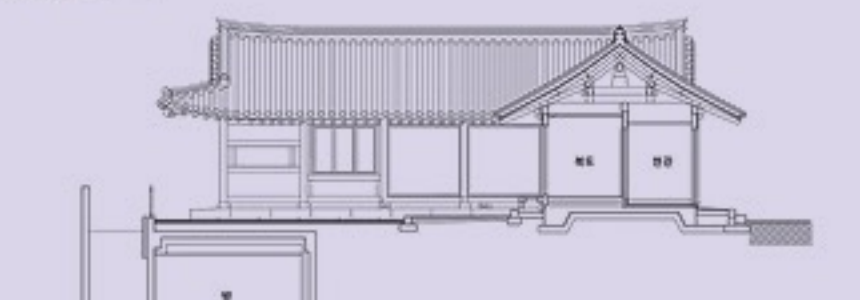
우측면도



입/단면도



총단면도



횡단면도



2023 ★★ 2025
 경영최우수상

법인/개인사업자
 최저
 4.4 ~ 5.0%
 (담보기준)

개 인
 긴급생활자금
 1억5천만
 한도

신용대출
 연금담보대출
 최저 4.6%
 (연금관리 회원적용)

광주건축사회 제39회 정기총회 개최

오는 25일 오전 10시 JS웨딩컨벤션 홀에서...



광주건축사회(회장 강필서)는 오는 3월 25일 오전 10시 광주 서구 JS웨딩컨벤션 2층에서 제39회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정기총회는 총 2부로 진행되며 1부는 국민의례, 건축사헌장 낭독, 내외빈 소개와 표창 및 시상식이 진행된다.

1부 행사에는 박상구 건축사(건축사사무소 더공감건축)에게 대한건축사협회 공로상 및 감사패를 수여하기로 했으며, 광주건축사회 및 건축사실험 임기 만료 및 퇴임 임원에게 공로패와 건축직 공무원 7인에게도 감사장을 수여할 예정이다.

2부에 진행될 부의안건은 '2025년도 일반 특별회계 수지결산(안) 승인의 건'과 '2026년도 일반 특별회계 수지예산(안) 승인의 건'과 '임원 및 대의원 선출의 건', 총 3개가 심의될 예정이다.

한편, 광주건축사회 정기총회 후 광주건축사실험 제44차 정기총회, 광주건축사연금관리회 제20차 연금관리회도 이어서 개최된다.

끝으로 광주건축사회 강필서 회장은 "이번 정기총회를 통해 협회의 발전과 화합의 장으로 만들기 위해 회원 여러분들의 많은 참석 바란다"고 말했다.

광주 녹색건축 및 에너지 인증제도 실무 세미나 개최

2월 25일 광주건축사회관서... 에너지절약·제로에너지·BF 인증까지 다뤄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과 광주광역시건축사회가 공동 주최하는 「광주 녹색건축 및 에너지 인증제도 실무 세미나」가 지난 2월 25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광주건축사회관 5층에서 개최됐다.

이번 세미나는 탄소중립 실현과 에너지 절감 정책이 강화되는 가운데, 녹색건축과 에너지 인증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현장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실무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에너지절약계획서 작성 실무를 비롯해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제도,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BF) 인증 등 최근 설계 및 사용승인 과정에서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주요 인증제도가 폭넓게 다뤄졌다. 특히 인증 절차와 평가 기준, 실무 적용 시 유의사항 등을 중심으로 사례 위주의 설명이 진행돼 참석자들의 이해를 도왔다.

광주건축사회 강필서 회장은 "정책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회원들의 실질적인 업무 역량을 높이기 위해 이번 세미나를 마련했다"며 "업무 역량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광주건축사회 강필서 회장은 "앞으로도 회원 복지 향상을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광주건축사회, 여성 건축사 정기총회 성료

지난 3월 12일 JS웨딩컨벤션 온실에서...



광주건축사회 여성 건축사 정기모임이 지난 3월 12일 광주건축사회 강필서 회장, 광주건축사회 여성위원회 김은자 위원장을 비롯해 약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JS웨딩컨벤션 온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모임에서는 여성 건축사들의 다양한 업무 경험과 건축

현장의 사례를 공유하는 간담회와 함께 회원 간 교류의 시간이 이어졌다.

김은자 여성위원장은 "앞으로도 여성 건축사들이 서로 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는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해 회원 간 네트워크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광주건축사회 강필서 회장은 격려사를 통해 "여성 건축사들의 기술적 역량과 섬세함이 지역 건축계의 성장을 이끌어왔으며, 앞으로도 더 많은 여성들이 건축 분야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리라 믿는다"고 전했다.

광주 서구, 전자 위반 건축물 예방 사례집 제작 및 배포

주요 건축물 위반 사례 및 사전 예방을 위해...



(사진 = 서구청 제공)

광주광역시 서구가 광주지역 자치구 가운데 처음으로 QR코드를 활용한 '전자 위반 건축물 예방 사례집'을 제작·배포한다. 이번 사례집은 건축법 위반행위에 대한 주민 이해를 높이고, 위반 건축물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례집에는 무단 증축·대수선·용도변경을 비롯해 조경 및 공개공지 훼손 등 주요 건축법 위반 사례를 시각 자료 중심으로 정리해 주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특히 QR코드가 포함된 안내 포스터를 제작해 동 행정복지센터와 공인중개사사무소 등에 배포하고, 스마트폰으로 사례집을 간편하게 열람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였다.

또한 사용승인 이후 2년 이내 건축법 위반행위가 집중되는 점을 고려해, 건축물 사용승인 단계에서 건축주에게 사례집을 직접 발송하는 등 사전 안내도 강화할 계획이다. 사례집은 서구청 누리집에도 게시해 누구나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유현수 건축과장은 "위반 건축물은 대부분 관련 규정을 잘 알지 못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며 "앞으로도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구민의 재산 피해를 예방하고, 사전 예방 중심의 건축행정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구는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광주건축사회 소속 건축사 20명이 참여하는 '건축민원 전문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위반건축물 양성화 절차 등 다양한 사항에 대해 무료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광주건축사연금관리회, 2026년 상반기 장학금 신청 접수

오는 4월 15일까지 신청 가능...

광주건축사연금관리회가 2026년 상반기 장학금 신청을 접수한다. 이번 장학금은 연금관리회 회칙에 근거해 회원 자녀의 학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유치원부터 대학교까지 학령별로 차등 지급된다. 입학 시에는 유치원 35만원,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각각 50만원이 지급되며, 고등학교와 대학교는 반기 기준으로 각각 35만원과 70만원이 지원된다.

신청 대상은 연금관리회 회원 자녀로, 유치원생부터 대학생까지이며, 자녀 수와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대학생의 경우 1년에 최대 2명까지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당해연도 기여금 납부 실적에 따라 장학금 및 복지 수혜에 일부 제한이 있을 수 있다. 신청은 오는 4월 15일까지 진행되며, 장학금 신청서와 함께 재학증명서 또는 입학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제출 서류는 팩스 또는 이메일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광주건축사연금관리회 강필서 회장은 "앞으로도 회원 복지 향상을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광주 회원동정

회원현황 : 473명 (2026. 3. 16. 기준)

- 입회
 - 박진우 건축사 / 서사 건축사사무소 / 광주광역시 북구 군왕로 154-1 2층
- 결혼
 - 김기준 건축사 / (주)맥스유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 아들 결혼 - 2026년 3월 7일(토)
- 부고
 - 최보은 건축사 / 창조D&C 건축사사무소 / 모친상 - 2026년 3월 7일(토)

이광원&조선희 법률사무소

변호사 이광원



- 전남 영랑 출생
- 광주국제고등학교 졸업
-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활동
- 순천시청 건축 별첨 심의위원
- 전남개발공사 준법감시 위원
- 대한변협 우수변호사 선정(2022년)

광주건축사회 법률자문위원 변호사 조선희



- 전남 강진 출생
- 전남대 법학과 졸업
- 전남대 산업대학원 건축공학과 수료
- 광주광역시 도시계획, 건축 공동위원회
- (현) 광주자치경찰 위원
- (현) 대한변협 대의원

광주광역시 동구 동명로 102-2, 3층 T. 062)234-7417

도시재생 뉴딜 거점시설 조성사업

주준호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헤인

전남 고흥군 고흥읍 고흥로 1698
Tel. 061-834-4273



대지위치 : 전라남도 고흥군 고흥읍 남계리 512 번지 외 3 필지 / 대지면적 : 691.0㎡ / 건축면적 : 125.28㎡ / 연면적 : 250.56㎡
건폐율 : 18.1302% / 용적률 : 36.2605% / 규모 : 지상 2층 / 구조 : 일반철골구조 / 주요 마감 : T3 A.1쉬트(불소도장)

건축물은 거점시설 조성사업을 통해 커뮤니티 신상권 형성하여 이용객 편의 및 주민복지를 목적으로 두고 있으며, 도시재생사업의 대표 거점공간으로 조성하여 마을공동체 및 청년조직과 상가조직, 지원단체의 적극적인 사업 참여와 활용이 가능하도록 추진하고자 함.

현대적 이미지인 직선의 강조로 영원한 진취성을 표현. 옥상 녹화조성으로 삭막한 도시의 이미지 개선 및 빗물의 유출 억제와 환경 개선 효과와 에너지 효율 증대로 사람과 자연이 공존할 수 있는 친환경 건축물로 계획 함.



1층 평면도



2층 평면도



옥상 평면도

전라남도건축사회, 제60회 정기총회 개최

신임 감사에 양경승 건축사(해룡 건축사사무소) 선출...



(사진 = 전라남도건축사회 제공)

전라남도건축사회는 지난 18일 전남 순천 에코그라드호텔에서 회원 19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60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기총회에는 이경일 회장의 개회선언에 이어 국민의례, 건축사헌장 낭독, 개회사, 신입회원 인사소개, 공로패 수상, 부의안건 채택 및 심의로 진행됐다. 특히 부의안건 의결사항으로는 제1호의안 회칙 개정의 건과 제2호의안 2025년도 일반 특별회계 수지결산서(안) 승인의건과 제3호의안 2026년도 일반 특별회계 수지예산(안) 승인의 건은 원안승인 되었다. 제4호의안 임원 선출의 건에서 신임이사는 최수용((유)아름 건축사사무소), 이주

경(건축사사무소 샘터), 박종혁((주)연희 건축사사무소), 강성일(반석 건축사사무소) 건축사, 신임 감사는 양경승 건축사(해룡 건축사사무소)를 선출하였다.

제5호의안 대의원 선출의 건에는 연임 : 양경승(해룡 건축사사무소), 박용묵((유)다산 건축사사무소), 박재봉(하늘 건축사사무소), 황승형(건축사사무소 희람), 한만호(한성 건축사사무소), 정기호(가산 건축사사무소), 박규남(라인 건축사사무소), 범정(범 건축사사무소), 최성수(건축사사무소 창), 김성규(키움 건축사사무소), 신임 : 김용일(건축사사무소 다음), 위준이(건축사사무소 온재), 최수용((유)아름 건축사사무소), 양인승(건축사사무소 아키라인(주)) 총 14인을 선임하였다.

전라남도, 공동주택 침수 막는 '전남형 물막이판' 표준 확정

미설치 공동주택 80개 단지 지하주차장에 설치 지원

전라남도가 기후위기 시대 극한호우에 대비해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침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전남형 물막이판' 표준(안)을 확정하고 2026년 80개 단지를 대상으로 긴급 설치 지원한다.



(사진 = 전라남도청 제공)

전남형 물막이판은 2022년 태풍 ‘힌남노’에 따른 포항 아파트 지하 주차장 사망사고와 2018년 보성, 2024년 완도 등 반복된 침수 피해를 계기로 도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전남도는 지난 10일 전남도 건축안전전문단과 구조기술사 호남지회, 전라남도건축사회, 기술사회 광주·전남지회 등 민간 전문가가 참여한 간담회를 열어 전남형 물막이판 표준(안)을 확정했다.

2026년에는 공동주택 80개 단지를 대상으로 단지당 500만원(도비 30%-시군비 70%)을 지원해 설치를 본격화하고, 2027~2028년에는 지원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우선 설치 대상은 시군과 협의를 거쳐 하천변 1km 이내 단지와 침수 이력지, 위험지구 내 공동주택이다.

임진출 전남도 건축개발과장은 “공동주택 지하층은 집중호우 시 침수에 취약하고 전기실 등 주요 설비가 밀집해 2차 안전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전남형 물막이판 표준(안)을 통해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기후위기 대응 선도모델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전라남도건축사회-목포공업고등학교, 전문인재 양성 업무협약 체결 마이스터고 지정 신청과 인재 양성을 위해...



(사진 = 전라남도건축사회 제공)

전라남도건축사회는 지난달 9일 전라남도건축사회 회의실에서 목포공업고등학교와 전문인재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마이스터고 지정 신청과 함께 건축 및 에너지 ICT 분야 산업 수요에 부합하는 전문 인재를 양성하고, 관련

분야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앞으로 건축 및 에너지 ICT 분야의 교육과 산업 현장 간 연계를 강화하고, 전문 기술 인력 양성을 위한 다양한 협력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전라남도건축사회 이경일 회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산업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 인재 양성에 기여하고 지역 건축 및 에너지 분야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여수시-여수지역건축사회, 장흥군-장흥지역건축사회 재난 피해 주택 신속 지원 업무협약

재난 피해로 주택을 신속 시 주민에게 설계 및 감리비를 50% 감면 지원



(사진 = 좌 / 여수지역건축사회, 우 / 장흥지역건축사회 제공)

전남 여수시와 장흥군이 재난으로 주택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신속한 주거 복구를 돕기 위해 지역 건축사회와 협력에 나섰다.

여수시와 대한건축사협회 여수지역건축사회는 지난 19일 재난으로 주택 피해를 입은 주민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재난 피해주택 신속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어 장흥군도 지난 25일 대한건축사협회 장흥지역건축사회와 같은 취지의 업무협약을 맺고 피해 주민 지원을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각 지자체와 지역건축사회는 피해 주민 안내와 행정절차 지원, 참여 건축사 인력풀 구성 및 관리, 피해주민 대상 설계·감리비 50% 감면 지원, 추진 상황 점검 및 협의 등을 공동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재난으로 주택이 전파되거나 유실돼 신속이 필요한 주민에게 설계와 감리 비용을 50% 감면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신속한 주거 복구를 돕는 데 목적이 있다. 또한 건축 인허가 등 행정 절차를 신속히 처리하고 건축 전문가와 피해 주민을 연계해 복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술적·행정적 어려움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여수시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통해 재난 발생 시 피해 주민들이 보다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주거를 복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주거 안정과 조속한 일상 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흥군 역시 지역 건축사들과 협력을 통해 피해 주민들의 복구 부담을 줄이고 신속한 일상 회복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양 기관은 협약이 실질적인 지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사항은 긴밀히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무안군 해체면 일원, 도리포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 2027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추진...

전라남도 무안군은 5일 해체면 송석리 일원 ‘도리포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을 고시하고 도리포 리조트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 절차를 마무리했다. 도리포 리조트 조성사업은 해체면 송석리 산9-1번지 일원 4만6,568㎡ 부지에 민간자본 약 2,400억원을 투입해 복합 관광·휴양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5월 전라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재심을 거쳐 수산자원보호구역이 해제됐고 같은 해 9월 무안군 도시계획·건축 공동위원회에서 지구단위계획이 의결됐다.

리조트는 호텔 245실과 풀빌라 105실, 연회장 등 숙박·문화시설을 갖춘 복합 레저시설로 조성될 예정이다. 시행사 측은 건축허가 절차를 거쳐 착공을 추진하고 오는 2027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무안군은 이와 함께 인근 송석리 일원에서 해체 도리포 관광명소화 사업, 서남해안 명품경관 조성사업 등 관광 기반 확충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관광안내소, 해남이 전망대, 송림숲 정비, 해상 탐방데크, 주차장 조성 등 관광 편의시설을 단계적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도리포 리조트 조성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이어가겠다”며 “관광 기반 확충을 통해 지역 관광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순천대학교 건축학부 이동희 교수, 대외협력부총장 취임 지역 협력 강화 및 대외 네트워크 확대 기대...



(사진 = 순천대 제공)

국립순천대학교는 건축학부 이동희 교수를 지난달 9일 대외협력부총장에 임명했다. 순천대는 “이번 인사는 지역사회 협력과 대외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대학의 공공성과 사회적 역할을 확대하며 순천대와 목포대의 대학통합 홍보를 위한 전략적 조치”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동희 부총장은 국립순천대 교수회사무처장, 건축학부장, 전남실버복지연구원 센터장, 산학협력중심대학 인력양성센터장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한국농촌건축학회 부회장과 대한건축학회 사진연구회 회장을 맡고 있다.

전남 회원동정

회원현황 : 478명 (2026. 3. 16. 기준)

• 입회

- 김석의 건축사 / 서가 건축사사무소 / 전남 광양시 광양읍 서천2길 11, 2층

• 변경(소재지)

- 조연준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창조 / 전남 여수시 시청서2길 51-5

- 국원식 건축사 / (주)건축사사무소 한신 / 전남 순천시 중앙2길 16, 2층



고객을 기쁘게 세상을 이롭게
반석기소이앤씨(주)

GeoCon (방재신기술) 팽이기초공법
침하지반보강/복원 로타리파일(헬리컬)
EcoSM 지반개량 강관압입파일
마이크로파일

New, Different, Better

호남지사장 / 이사 김유성

010. 5007. 8437 | 3rsinhwa@hanmail.net

전화 070-4482-0257 팩스 062-975-0140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208번길 43-22,
와이어스파크 A동 1114호(오룡동)

INNOBIZ기업 | ISO 9001인증

본사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읍 고재로 141-16
전화 031-577-1673 팩스 031-577-1674

www.bs-base.co.kr





임실소방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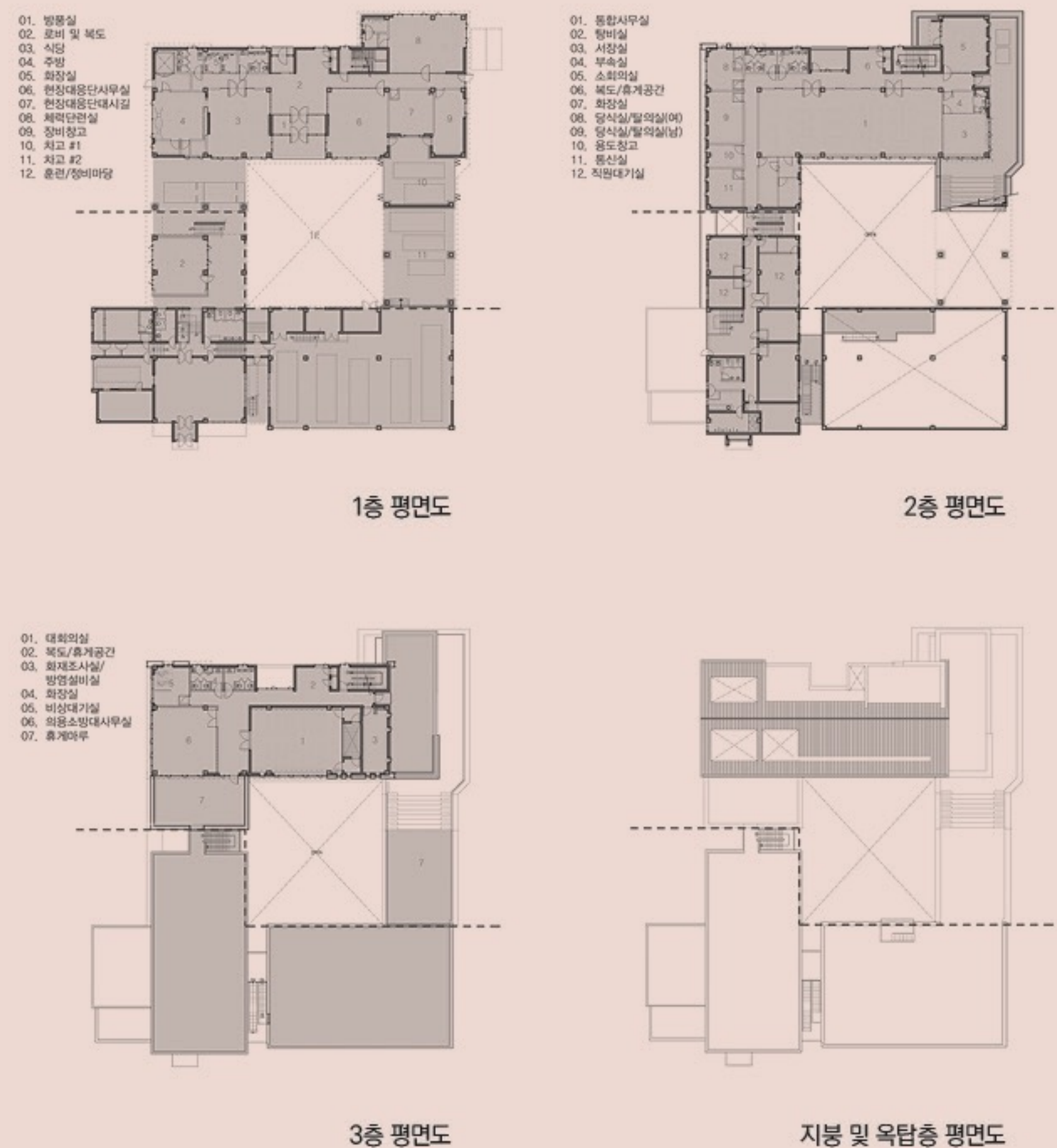
한성호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아이든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미장안7길 16, 301호 / Tel. 070-4351-3841
 이영창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국도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미장안7길 16, 301호 / Tel. 063-452-6301
 선태훈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더함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미장안7길 16, 301호 / Tel. 070-4438-1222

본 프로젝트는 전라북도 동부 산악지역으로 산으로 둘러싸인 지역에 위치하며 기존 119안전 센터에 사무영역과 직원 편의시설, 차고 영역을 추가 증축함으로써 안전 센터에서 소방서로 승격하게 된 건축물을 디자인하는 것이다.

기존 안전 센터와 증축 건축물의 매스는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다양한 외부공간을 형성하여 증축된 시설과 연계를 강화하는 데 설계 주안점을 두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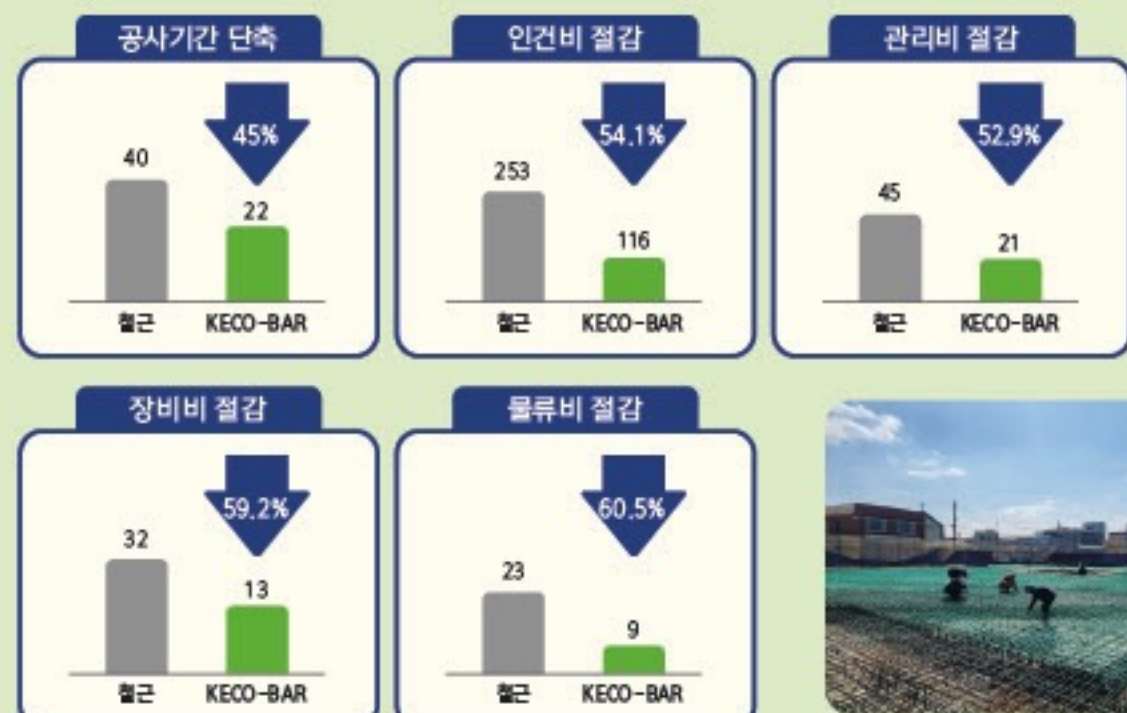
대지위치 :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임실을 이도리 400-18번지 외 13필지 / 대지면적 : 8,127㎡ / 건축면적 : 1,559.979㎡
 연면적 : 2,609.606㎡ / 규모 : 지상 3층 / 주용도 : 업무시설 / 구조 : R.C.조, 경량철골구조 / 주요마감 : 치장벽돌쌓기, 세라믹 합금도금강판



KCMT와 SK 에코플랜트 가 함께 만들고 세계로 수출하는 친환경 신소재 철근 **KECO-BAR**

설계(VE) 및 경제성 검토 문의 대환영!!

-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록(이형철근 대비 예산 절감)
- 한국도로공사 GFRP보강근 설계 의무화 지침 하달
- 국방부 "GFRP보강근" 신기술 우수제품 활용통보
- 공장, 차고, 근생주택, 축사, 수리시설(농어촌공사), 조선소(항만) 특화자재



KECO 공식판매처
 전국 T. 061-371-1233
 F. 062-971-4896
 M. 010-3484-2886
 건축주/건축사/시공사/
 대리점 문의 환영
www.kcmt.co.kr

전북특별자치도건축사회·전주지역건축사회 정기총회 잇따라 개최 예정 오는 3월 20일(전북특별건축사회), 30일(전주지역건축사회)

전북특별자치도건축사회와 전주지역건축사회가 이달 정기총회를 잇따라 개최하고 협회 운영과 관련한 주요 안건을 논의할 예정이다.

전북특별자치도건축사회는 오는 3월 23일 오후 4시 전주 그랜드힐스호텔 신관 5층 그레이스홀에서 제60회 정기총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이번 총회에서는 2025년도 수지결산(안) 승인과 2026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 심의, 임원 및 대의원 선출 등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한편, 이번 감사선거에는 전주지역 건축사사무소 이건 이응록 건축사가 단독 출마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 입후보자에 대한 자세한 이력 및 소견은 전북건축사회 홈페이지 알림광장을 참조하면 된다.

이어 전주지역건축사회도 오는 3월 30일 오후 4시 같은 장소인 전주 그랜드힐스호텔 신관 5층 그레이스홀에서 제38회 정기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전주지역건축사회 정기총회에서는 2025년도 수지결산(안) 승인, 2026년도 회비수납기준(안) 심의·승인, 2026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 심의·승인 등이 논의될 계획이다.

양 단체는 정기총회를 통해 지난해 추진 결과와 재정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협회 운영 방향과 주요 사업 계획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끝으로 전북특별자치도건축사회 이성열 회장은 “정기총회를 통해 협회 운영 현황을 회원들과 공유하고 향후 사업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북 익산, 정읍 지역 - 각 건축사회 업무협약 체결

재난 피해주택 신속 복구 지원...



(사진 = 정읍건축사협동조합 제공)

재난으로 주택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건축단체 간 협력이 확대되고 있다.

익산시는 지난 27일 익산지역건축사회와 재난 피해주택 신속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재난으로

주택을 새로 지어야 하는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신속한 복구 지원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협약에 따라 익산시는 건축 인·허가 등 관련 행정 절차를 신속히 처리하고, 익산지역건축사회는 설계비와 감리비를 50% 감면해 피해 주민의 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다.

채준섭 익산지역건축사회 회장은 “지역 건축사들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설계와 감리비 감면 지원에 적극 동참하겠다”며 “재난 피해 시민들이 조속히 주거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정읍시 역시 지난 20일 정읍시건축사협동조합과 협약을 체결하고 재난 피해 주택 복구 시 설계 및 감리비를 최대 50%까지 감면하기로 했다. 양 기관은 피해 주민을 위한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행정 자료 공유와 함께 효율적인 복구 지원에 협력할 계획이다.

이학수 정읍시장은 “재난으로 삶의 터전을 잃은 시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으며, 이성진 정읍시건축사협동조합 회장도 “피해 주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협약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지자체와 건축단체 간 이번 협력은 재난 피해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신속한 주거 복구를 지원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북특별자치도, 민간 공동주택 사업에 ‘용적률 인센티브’ 도입

지역업체 참여 확대...

전북특별자치도가 민간 공동주택 사업에서 지역 업체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한다.

전북자치도는 최근 「전북특별자치도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을 마련하고 오는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지침은 도시지역에서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추진되는 공동주택 사업을 대상으로 하며, 지역 건설업체 참여 실적에 따라 최대 20% 범위에서 용적률 인센티브

를 부여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동안 지역 자재 사용이나 하도급 확대 등을 권장해 왔지만 실질적인 강제력이 부족해 민간 공동주택 사업에서 지역 업체 참여율이 낮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도는 사업 수익성과 밀접하게 연계된 용적률 제도를 활용해 민간 사업자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정책 방향을 조정했다.

용적률 적용 방식은 시·군 조례에 따른 용적률을 기준으로 하되, 지구단위계획 수립 단계에서 기준용적률을 약 80~85% 수준으로 설정하고 지역업체 참여 정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추가 용적률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인센티브 항목은 ▲종합건설업 공동도급 ▲전문건설업 하도급 ▲전기·통신·소방공사 도급 ▲설계용역 공동도급 ▲지역 건설자재 사용 ▲건설장비 활용 등 6개 분야로 구성됐다.

최정일 전북자치도 건설교통국장은 “이번 제도가 지역 건설산업 지원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민간 사업자와 지역 업체 간 협력 기반을 확대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전북 전주시, 서부신시가지와 효천지구 등 판넬 사용 제한 규제를 개선 건축사회와 대한건설협회 등 유관기관과 협의 및 홍보 예정...



(사진 = 전주시청 제공)

전북 전주시가 2026년에도 도시개발 당시 획일적·관행적으로 제한하거나 사회 여건 변화가 반영되지 않은 낡은 규제를 선제적으로 발굴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바꿔나가기로 했다.

대표적으로 시는 이 달 중 서부신시가지와 효천지구 등에서 건축 외벽 및 지붕에 판넬 사용을 전면 제한했던 규

제를 개선키로 했다.

이는 최근 고성능·난연 판넬이 개발되면서 화재 안정성이 확보된데 따른 것으로, 시는 건축법상 방화 성능을 충족할 경우 판넬 사용을 허용하는 것으로 변경할 계획이다. 시는 건축사회와 대한건설협회 등 유관기관과 협의 및 홍보를 거쳐 이달 말 해당 내용을 담은 지구단위계획 결정 고시를 완료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시는 올해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의와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변경된 규정이 현장에서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실효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시는 앞으로도 현장 의견 수렴과 정기적인 규제 점검을 통해 시대에 맞지 않는 낡고 획일적인 규제를 발굴하고, 유관기관 협의 및 홍보를 병행해 규제 합리화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전북 회원동정

회원현황 : 530명 (2026. 3. 16. 기준)

• 입회

- 최은정 건축사 / 최강 건축사사무소 / 고창군 고창읍 중거리당산로 175
- 박한빈 건축사 / 맨하튼 건축사사무소 / 전주시 덕진구 만성중앙로 54-58, 5층 534호
- 김예술 건축사 / 제일 건축사사무소 / 정읍시 초산로 107-1, 1층

• 변경(소재지)

- 김용준 건축사 / (주)건축사사무소 사야 / 전주시 완산구 평화로 162, 302호

• 변경(사무소명)

- 조창호 건축사 / (주)건축사사무소 이상건축 → (주)건축사사무소 에이앤엑스

• 변경(사무소명 및 소재지)

- 이동욱 건축사 / 와이엠디티(YMDT) 건축사사무소 → (주)건축사사무소 에이앤엑스 / 전주시 완산구 서학로 102

• 결혼

- 이응록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이건 / 딸 결혼 - 2026년 2월 28일(토)
- 김동범 건축사 / 동방 건축사사무소 / 아들 결혼 - 2026년 3월 7일(토)
- 설재희 건축사 / 광남 건축사사무소 / 아들 결혼 - 2026년 3월 7일(토)
- 유기호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뿌리 / 딸 결혼 - 2026년 3월 14일(토)

• 부고

- 박광섭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비전 / 모친상 - 2026년 2월 10일(화)
- 정용균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세운건축 / 빙부상 - 2026년 2월 14일(토)
- 서봉욱 건축사 / 아이에스 건축사사무소 / 부친상 - 2026년 2월 21일(토)
- 정광수 건축사 / 사원 건축사사무소 / 장인상 - 2026년 2월 24일(화)
- 김남중 건축사 / (주)라인종합 건축사사무소 / 모친상 - 2026년 2월 26일(목)
- 조용섭 건축사 / 조용섭 건축사사무소 / 본인상 - 2026년 3월 2일(월)

광주건축사회 답사동호회 - 광주 답사기

이정석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이오



광주건축사회 답사동호회의 2026년 첫 여정은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광주'에서 시작되었다. 매일 지나는 가로(街路)이지만, 회원 건축사들의 손끝에서 탄생한 공간을 직접 목격하고 설계 의도를 현장에서 듣는 시간은 그 어느 때보다 특별했다. 익숙한 도시 풍경 속에 담긴 동료들의 치열한 고민을 마주하며, 건축이 도시의 기억과 사람의 내일을 잇는 이정표임을 다시금 확인한 시간이었다.

광주중앙도서관

답사의 첫 발을 댄 곳은 광주중앙도서관이었다. 과거의 권위적이고 무거웠던 외관을 기억하던 나에게 새롭게 변모한 도서관의 첫인상은 비움이었다. 상부의 육중한 수벽을 과감히 견어내 켄틸레버 구조를 가감 없이 노출하여 건물이 가진 본질적인 수직·수평 질서를 선명하게 재현하고 있었다.



가장 눈길을 사로잡은 것은 '책장'을 모티프로 풀어낸 전면 파사드였다. 단순히 장식적인 요소를 넘어 도서관의 정체성을 직관적으로 드러내는 이 입면은 금속 마감재를 통해 완성되었는데, 세월에 따라 자연스럽게 부식된 금속의 질감은 설계자의 의도를 넘어선 조화로운 뉘앙스를 뽐내었다. 새로움 속에 내려앉은 시간의 흔적은 도서관이 품은 역사적 가치를 현대적으로 증명하는 듯했다.

기존의 폐쇄적인 경계를 허물고 확장된 선긋 공간은 가로와 마당 사이의 단차를 없애 주변 환경과의 연결성을 극대화한 덕분에 도서관은 이제 스스로 풍경의 일부가 되는 열린 공간이 되었다. 지하층까지 깊숙이 유입되는 빛을 따라가며, 건축이 도시를 향해 얼마나 너그러운 태도를 취할 수 있는지 실감할 수 있었다.



비테라 인 테라스

도서관의 여운을 뒤로하고 금동의 인쇄 골목으로 향하자, 평탄한 도심 풍경 속에서 특 튀어나온 큐브들이 리듬감을 형성하는 비테라 인 테라스가 나타났다. 인쇄소의 활자판에서 영감을 얻었다는 큐브형 테라스는 일반적인 오피스텔의 단조로운 평면성을 깨뜨리며 강렬한 입체적 파사드를 구축하였다.

멀리서 보았을 때 강렬하게 느껴졌던 붉은색 계열의 외관은 가까이 다가갈수록 골목에 생동감을 불어넣는 적절한 장치로 다가왔다. 주변 골목의 무채색 풍경과 대비되는 이 과감한 컬러 선택은 쇠퇴한 상업 지역에 던지는 건축적 활력처럼 느껴졌다. 개별 세대에 부여된 개방형 테라스는 거주자에게는 차경의 즐거움을, 도시에는 살아 움직이는 듯한 입면의 깊이감을 선사한다.



건축물은 수익성 너머의 상생으로도 향해 있었다. 저층부를 조선대학교와 협력한 청년창작공간과 시민들에게 개방되는 북카페로 할애한 결정은 매우 인상적이었다.

1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시민의 품으로 돌아간 이 공간의 의미는 집합 주거가 어떻게 지역 사회의 문화적 거점이 될 수 있는지 보여주는 훌륭한 대안이었다.



양림 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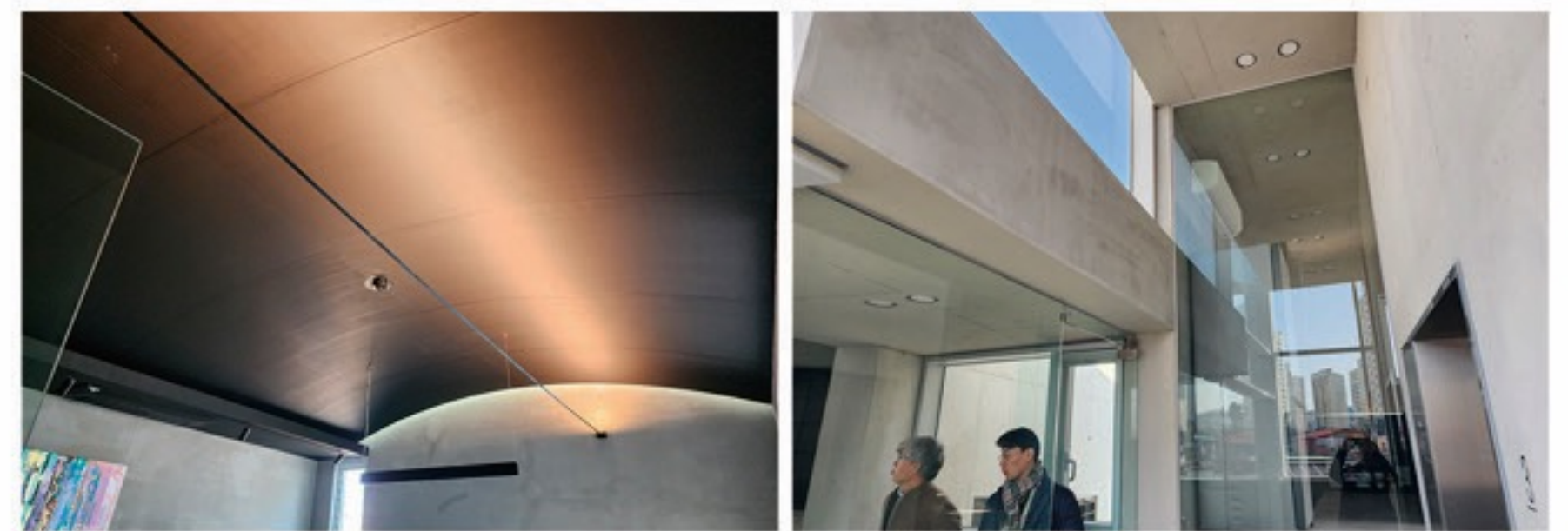
답사의 대미는 양림동의 역사적 맥락 속에 묵직하게 자리 잡은 양림 돌이 장식했다. 플랜건축사사무소 사옥인 이곳은 대지에 순응하기 위해 3개로 분할된 매스가 서로 엇갈리고 맞물리며 오묘한 응집력을 발산하고 있었다. 평소



다루기 어려운 노출 콘크리트를 주재료로 선택했음에도, 그 거친 질감은 오히려 양림동의 오래된 바윗돌과 공명하며 장소의 역사성을 단단히 붙들고 있었다.

건축물 내부에 발을 들이는 순간, 나는 마치 현대적인 동굴을 탐험하는 관찰자가 된 듯했다. 스킵플로어 구조를 따라 실별로 변화무쌍하게 적용된 층고와 반자 디자인은 걸음을 옮길 때마다 매번 새로운 공간적 경험을 선사했다. 거친 외피 안에서 느껴지는 공간의 수직적 변주는 아늑하면서도 신비로운 긴장감을 동시에 주었다.

푸른길 공원을 향해 열린 창들과 마을의 전경을 끌어들이는 통경축은 내부와 외부의 경계를 유연하게 허물고 있었다. 특히 기존 집터의 바윗돌을 계단 첫 단에 배치하여 풍화된 콘크리트 벽과 대비시킨 지점에서는 전율이 느껴졌다. 건축은 결국 땅이 품고 있던 시간의 물질을 발굴해내는 작업임을, 건축가는 자신의 사옥을 통해 온몸으로 웅변하고 있었다.



이번 답사는 광주중앙도서관, 비테라 인 테라스, 양림 돌을 차례로 경험하는 소중한 여정이었다. 특히 회원들의 작품을 직접 보고 설계의 뒷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추상적인 공간의 가치들이 더욱 명확하고 친근하게 다가왔다.

회원 건축사들의 의도가 담긴 건축물은 단순한 감상의 대상을 넘어, 우리에게 "도시를 위해 무엇을 남길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져주었다. 함께 걷고 토론하며 얻은 시각적 자극들이 2026년 한 해 동안 우리가 그려나갈 설계의 선들 위에 든든한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하며, 뜻깊은 첫 답사를 함께해 준 모든 회원 건축사분들께 깊은 감사를 전한다.

일로농공단지 청년문화센터 건립사업 건축설계공모

농공단지 내 근로자의 수요에 맞는 복지·문화시설의 조성으로 근로여건을 개선하여 근로자들의 삶의 질 향상하며, 청년문화센터 건립으로 입주사업체 및 근로자뿐만 아니라 인근 마을 주민들도 함께 이용함으로써 새로운 문화 중심지로 역할 기대함. 문화 비즈니스 공간 조성으로 청년인구 유입 및 지역경제 성장거점 농공단지로 발전 도모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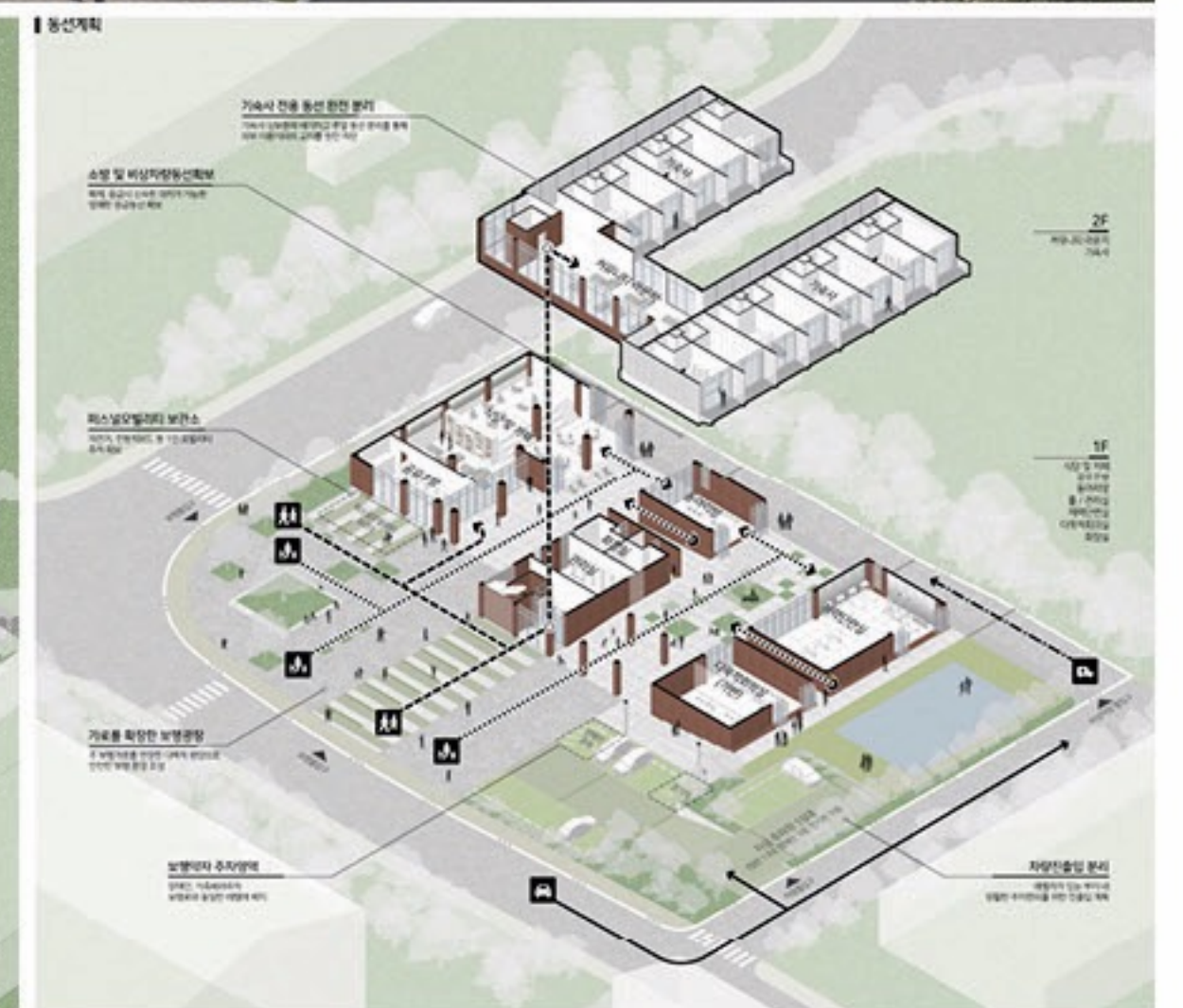
심사위원 : 김태훈(목포대학교), 정구헌(호서대학교), 이영수(더존건축사사무소), 정영진(유한회사단건축사사무소), 김준섭(비티비건축사사무소)

- 대지위치 : 전라남도 무안군 일로읍 상신거리 761
- 대지면적 : 4,337.20㎡
- 연 면 적 : 1,327.73㎡

- 건 폐 율 : 22.39%
- 용 적 륭 : 30.61%
- 규 모 : 지하 1층, 지상 2층(신축동) / 지상 1층(리모델링동)
- 주 요 마 감 : 브릭, 콘크리트패널, U-glass, 로이복층유리

당선작

하신해 건축사 / 하하 건축사사무소



책 소개 _ 김다현 학생기자 / 조선대학교 건축학과(5년제)

건물 사이의 삶

안 겔 / 파람북 / 2026. 02. 19.

우리는 도시를 떠올릴 때 흔히 높은 건물과 넓은 도로, 그리고 기능적으로 구분된 공간 구조를 먼저 생각한다. 그러나 안 겔의 <건물 사이의 삶>은 도시의 진짜 가치는 건물 자체가 아니라 그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사람들의 활동에 있다는 점을 이야기하는 책이다. 덴마크의 건축가이자 도시환경 연구자인 안 겔은 기능주의 건축과 자동차 중심 도시계획이 지배하던 시대 속에서, 사람들이 실제로 거리와 공공 공간을 어떻게 사용하고 경험하는지를 관찰하며 도시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선을 제시한다. 이 책은 도시를 거대한 구조물의 집합으로 보는 대신, 사람들이 머물고 만나며 관계를 형성하는 생활의 공간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담고 있다.

책에서 안 겔은 도시의 옥외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인간 활동을 세 가지로 구분한다. 출퇴근이나 장보기처럼 반드시 이루어지는 '필수 활동', 산책이나 휴식처럼 공간의 환경에 따라 달라지는 '선택 활동', 그리고 사람들이 서로 만나고 교류하면서 발생하는 '사회적 활동'이다. 저자는 이 세 가지 활동의 관계를 통해 도시 공간의 활력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설명한다. 특히 선택 활동과 사회적 활동은 거리의 환경이 쾌적하고 머물기 좋은지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즉 사람들이 머물 수 있는 공간이 잘 조성될수록 거리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다양한 사회적 관계가 형성된다는 것이다. 안 겔이 강조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개념은 '인간적 스케일'이다. 자동차 중심으로 설계된 현대 도시에서는 거대한 도로와 높은 건물들이 공간을 지배하면서 사람들의 경험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환경에서는 거리가 단순히 이동을 위한 통로로 기능하게 되고, 사람들은 도시 공간을 충분히 경험하지 못한다. 반면 보행자의 속도와 시각을 기준으로 설계된 거리에서는 작은 상점의 전면, 거리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활동, 그리고 사람들의 움직임이 도시의 풍경을 풍부하게 만든다. 저자는 사람들이 도시에서 경험하는 대부분의 활동이 건물의 저층부와 거리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에 주목하며, 인간의



감각과 행동을 고려한 공간 설계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이 책을 읽으며 특히 인상 깊었던 점은 도시의 활력이 거대한 건축물이나 화려한 시설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거리에서 경험하는 일상적인 활동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이었다. 실제로 우리가 매력적이라고 느끼는 도시 공간을 떠올려 보면 대부분 걷기 좋고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지는 거리라는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다. 이는 도시가 단순한 물리적 구조가 아니라 사람들의 경험과 관계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공간이라는 사실을 다시 생각하게 만든다.

<건물 사이의 삶>은 도시와 건축을 바라보는 관점을 사람 중심으로 확장시키는 책이다. 이 책은 건축과 도시계획이 단순히 효율적인 공간을 만드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머물고 서로를 경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과정이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결국 도시의 진정한 가치는 건물 자체가 아니라 그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삶에 있으며, 이러한 관점은 오늘날 우리가 어떤 도시를 만들어야 하는지에 대해 중요한 질문을 던진다.

한 편의 시 _ 濟堂 추원호 / 건축사사무소 신세대그림

의지

눈 앞에 보이는 티끌은
손으로 지울 수 있으나
내 마음속 티끌은
쉽게 지울 수 없구나

눈으로 보이는 거칠음은
손으로 치울 수 있지만
마음속 미움은
쉬이 지울 수 없고

눈으로 보이는 짜증은
외면하면 끝이지만
마음 한 곳에 스며든 짜증은
시간이 흘러야 사라진다

바라보는 눈 길을
어디에다 두느냐와
마음속에 담아 둔 감정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도 달라지느니라.



한 장의 사진 _ 정범수 건축사 作 / 남북 건축사사무소



노을 빛으로 물든 미륵사탑

건축문화사랑

2009년 11월 10일 창간

발행처 광주광역시건축사회
 발행인 강필서, 이경일, 이성열
 편집인 허만수
 부편집인 장기섭, 임현정, 육광돈
 자문위원 서재형, 정명환, 강동영, 박종호, 박주현, 임태형
 전담기자 김종문
 편집위원 정영진, 김미리, 김종원, 강성구, 최기성, 설혜순, 오선화, 윤미순, 양창근, 최정미
 등록번호 광주광역시 라00144
 간별 월간
 등록일자 2010-01-25
 편집및인쇄 레이아웃 T. 070-8277-2589
 광고신청 T. 062)521-0026

광고 및 이메일 구독신청

건축과 도시, 사람과 자연의 경계를 넘는
소통과 공유의 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적극적인 관심과 사랑을 바랍니다.

- 후면 전면광고 : 1,000,000원
- 후면 외 전면광고 : 500,000원
- 하단광고 : 250,000원
- 하단1/2광고 : 150,000원
- 구독료 : 무료
- 구독신청 방법 : 성명, 이메일 주소 작성 후 gjkira@empas.com 발송

건축문화사랑 신문

T. 062)521-0025~6 F. 062)528-0026

건축문화사랑

신문 발전기금을 모집합니다

- 발전기금 : 1만원부터
- 후원방식 : 신협 131-009-471898 (예금주 : 광주건축사회)

건축문화사랑

원고모집

건축문화사랑에 게재할 원고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독자사진/지역소식/동호회소식/책/수상/수필/작품노트/건축작품/독자만평/기타(기행문, 시, 문학작품, 미담, 학위취득, 교수임용 등)
 원고마감 : 매달 5일
 문의 : 광주건축사회(T. 062-521-0026 / gjkira@empas.com)
 1. 건축작품 및 기타를 제외한 모든 원고는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
 2. 원고에는 작가의 사진과 사무소명, 직책 및 약력을 첨부
 3. 원고는 아래 한글, 명조체, 10pt로 작성, 사진은 디지털파일로 제출